

최하위 추락 KIA ... 외국인 선수 없이 팀 운영 '칩칩산중'

T 타이거즈 전망대

칩칩산중의 '호랑이 군단'이 외국인 선수 없이 최하위 탈출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프레스턴 터커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터커는 지난주 6경기에서 23타수 2안타, 0.087의 타율에 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결국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최하위'로 추락한 KIA는 KT 위즈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6연전을 외국인 선수 없이 꾸려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5월 26일 맹덴에 이어 지난 4일에는 브룩스가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KIA는 외국인 '원투펀치' 없이 힘겹게 마운드를 꾸려가고 있다.

여기에 터커의 부진이 겹치면서 무기력한 공격을 이어간 KIA는 결국 최하위까지 떨어졌다.

KIA는 지난 20일 LG와의 경기에서 0-6 영봉패를 당하면서 4연패와 함께 시즌 첫 단독 꼴찌로 내려앉았다. 승률 4할 벽도 깨졌다. 이날 패배로 올

극심한 부진 터커 빠지고 나지완 합류 ... KT·키움 원정 6연전

미래 비전 없는 근시안 구단 운영·주먹구구식 선수 육성이 문제

시즌 전적은 24승 37패가 됐고, 승률은 0.393로 떨어졌다.

두 외국인 투수가 빠진 마운드에서 '깜짝스타'가 탄생하지 않았다.

'막내' 이의리 혼자 5.2이닝 무실점 '10K'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지난주 선발로 프로 데뷔전에 나선 고졸 2년 차 최용준과 두 번째 선발 기회를 얻은 차명진이 '불넷'에 발목 잡히면서 일찍 초반 싸움 분위기가 기울었다.

LG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고질적인 타선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주 KIA는 6경기에서 단 8득점에 그쳤다.

특히 주말 3연전 중 두 경기에서는 단 한 점도 만들지 못하고 영봉패를 당했다.

18일 경기에서는 3안타의 빈타로 LG 차우전에

게 복귀전 승리에 이어 시즌 2승째를 헌납했다.

19일에는 14개의 안타와 4개의 볼넷에도 단 2점을 뽑는 데 그쳤다. 그리고 20일에는 7개의 안타와 3개의 볼넷도 골라냈지만 홈에 들어오던 최정웅이 아오되는 등 역시 무득점으로 경기가 끝났다.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장타력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KIA가 0-5 영봉패를 당했던 18일 LG 이형준은 김유신을 상대로 멀티홈런을 날리면서 분위기가 싸움을 주도했다.

반대로 KIA는 올 시즌 단 21개의 팀 홈런만 기록하면서 여전히 홈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SSG 최정, 삼성 피렐라, NC 양의지가 16개의 한방으로 홈런 1위 싸움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기록이다.

■KBO중간순위 (2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LG	64	38	0	26	0
2	KT	61	35	0	26	1.5
2	SSG	61	35	0	26	1.5
4	삼성	64	36	0	28	2.0
5	NC	62	31	1	30	5.5
6	두산	63	32	0	31	5.5
7	키움	65	31	0	34	7.5
8	한화	64	26	0	38	12.0
9	롯데	63	25	1	37	12.0
10	KIA	61	24	0	37	12.5

'한방'이 없다 보니 상대 배터리 입장에서 위기 상황의 부담이 덜하다. 반대로 KIA는 '한방' 부재로 타점 없는 산발적인 안타만 생산해내고 있다.

단타로 어렵게 점수를 뽑고, 장타로 쉽게 실점을 하는 패턴이 이어지면서 결국 최하위 추락으로 자존심을 구겼다.

KIA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단의 미래·비전 없는 근시안적 운영과 주먹구구식 육성에 따른 '얕은 선

수층'에 있다.

또 고질적인 문제인 부상 경계를 위해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체력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선수단 관리에 나섰지만 부상은 여전히 많다. 선수층이 얇다 보니 KIA에 부상은 더 치명적이다.

결국 선수가 한정되면서 '경쟁'을 통한 전력 강화도 쉽지 않다.

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현장에서 '없는 전력'으로 구슬을 잘 꿰어가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윌리엄스 감독은 타선의 흐름을 막는 터커를 엔트리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뒀다.

젊은 선수들의 '무한경쟁'을 통해 또 적절한 타순 배치를 통해서 득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캡틴'도 위기 탈출 선봉에 선다.

요구리 부상으로 고전했던 나지완이 지난 주말 1군 선수단에 합류해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경험 많은 나지완이 타선의 힘을 더해주고, 패배의 먹아웃에 '호랑이 본성'을 깨워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1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파크 앳 캠든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 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6회에서 토론토의 류현진(34)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김광현 동반 선발승 '어렵네'

류현진, 7이닝 1실점 시즌 6승

김광현, 4이닝 1실점 패전투수

미국프로야구(MLB)에서 뛰는 왼손 투수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동반 선발승 달성이 세 번째 도전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류현진은 21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치른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공 100개를 던져 1점만 주는 뛰어난 투구로 팀의 7-4 승리를 이끌었다.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경기 이래 23일 만이자 4번째 도전에서 시즌 6승(4패)째를 수확했다. 1회말 트레이 맨시니에게 체인지업을 던졌다가 홈런을 맞고 정신을 차린 류현진은 이후 빠른 볼과 컷 패스트볼로 볼 배합을

바꿔 볼티모어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강판하기 전까지 18명의 타자 중 17명을 범타로 돌려세워 시즌 4번째로 7이닝 투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현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방문 경기 더블헤더 2차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3안타를 맞고 1실점 했다. 3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에게 중월 솔로 홈런을 맞은 게 유일한 실점이었다. 김광현은 0-1로 끌려가던 5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의 타석에서 대타로 교체됐고, 7이닝 더블헤더 경기가 0-1 세인트루이스의 패배로 끝나 시즌 5패(1승)째를 안았다.

한편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양현종(라운드록 익스프레스)은 트리플 A 오클라호마시티 다저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3.2이닝 동안 3피안타(2홈런) 무사사구 3탈삼진 2실점(2자책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처럼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 파인스 골프코스 남코스에서 열린 제121회 US오픈 골프대회 파이널 라운드 18번홀에서 램(27·스페인)이 버디퍼트를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탈리아 '3연승·무실점' 16강 골인

유로 2020, A매치 30경기 무패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가 웨일스를 꺾고 '3연승·무실점'의 완벽한 경기력으로 A매치 30경기 연속 무패를 앞세워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탈리아는 21일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전 최종전에서 10명이 싸운 웨일스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안드레아 벨로티(토리노)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워 다니엘 제임스(맨유)와 개러스 베일(레알 마드리드)을 좌우 날개로 배치한 이탈리아는 전반 39분 결승 골을 터트렸다.

마르코 베라타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찬 프리킥을 마테오 페시나(아틀란타)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 웨일스 골문 왼쪽 구석에 꽂았다. 웨일스 이션 암파두(첼시)가 후반 10분께 볼경

합을 펼치다가 베르나르데스키의 발을 강하게 밟았고, 주심은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탈리아는 수적 열세에 빠진 터키를 몰아붙였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1-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3전전승에 무실점(7득점)으로 완벽하게 조별리그를 마무리하고 16강에 진출한 이탈리아는 C조 2위 팀과 오는 27일 새벽 8강 진출을 다툰다.

더불어 이탈리아는 이날 승리로 최근 A매치 30경기 연속 무패(25승 5무)를 달리며, 1935년 11월 24일-1939년 7월 20일까지 기록했던 역대 A매치 최다 무패 기록(30경기·24승 6무)과 타이틀이었다.

승점 4(골 득실+1)를 기록한 웨일스는 이날 터키(3패)를 3-1로 따돌린 스위스(1승 1무 1패·승점 4·골 득실-1)와 승점이 같아지고,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16강 티켓을 품었다. /연합뉴스

코로나 이겨낸 '람보' 램, 역전 버디쇼

제121회 US오픈 골프 우승

온람(27·스페인)이 제121회 US오픈 골프대회(총상금 12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람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 파인스 골프코스 남코스(파71·767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6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램은 2위 루이 우스트히즌(남아공)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225만 달러(약 25억5000만원)다.

이 대회 전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2019년 US오픈 공동 3위가 최고 성적이었던 램은 이번 대회를 제패하며 스페인 선수로는 최초로 US오픈 정상에 올랐다.

스페인 선수가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한 것은 2017년 마스터스 세르히오 가르시아 이후 이번 램이 4년 2개월 만이다.

람은 17번 홀(파4)에서 약 7.5m 버디 퍼트를 넣고 우스트히즌과 공동 1위가 됐고,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는 두 번째 샷이 병커로 들어갔지만 약 5.5m 거리 버디 퍼트를 또 넣어 단독 1위로 먼저 경기를 마쳤다.

람은 후반 들어 계속 버디 퍼트가 조금씩 빗나가며 선두권을 뺏겼지만 하다가 마지막 2개 홀에서 연달아 까다로운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포효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 1위였던 우스트히즌은 1타 차 단독 선두를 달리다 램의 17, 18번 홀 연속 버디 때문에 1타 차 단독 2위로 밀려났다.

2010년 디오픈 우승자 우스트히즌은 메이저 대회에서 준우승만 6차례 하게 됐다. 5월 PGA 챔피언십에 이어 올해만 메이저 두 번째 준우승이다.

람은 이달 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

얼 토너먼트 3라운드까지 6타 차 단독 1위를 달려 우승을 눈앞에 뒀으나 3라운드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와 기권했다.

올해 4월 첫야들을 얻고 아빠가 된 램은 미국 아버지의 날인 현지 날짜 20일에 메이저 왕좌에 올라 더욱 의미 있는 우승이 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브라이슨 디샴보(미국)는 17번 홀(파4)에서만 4타를 더 잃고 20위 밖으로까지 밀려났다.

임성재(23)는 5오버파 289타로 공동 35위, 김시우(26)는 6오버파 290타로 공동 40위에 올랐다.

5월 PGA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대회 사상 최초의 50대 챔피언이 된 필 미켈슨(미국)은 11오버파 295타, 공동 62위에 그쳤다.

/연합뉴스